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총력

전주시, 재해지원본부 구성·운영… 피해 복구·영업 재개 신속 지원

최근 화재 피해가 발생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 본부가 본격 가동됐다.

전주시는 지난 9일 발생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 재개와 시설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원본부'를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1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

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지원본부는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재해지원본부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전담하는 현장지원센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이 가운데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애로사항 접수 △일일 복구 추진 상황 공유 △법률 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치유센터와 연계한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지원본부는 총괄·지원팀을 중심으로 △피해복구팀 △재난지원팀 △대외협력팀 △심리지원팀 △유관기관 협력팀 등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복구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는 긴급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예산 투입, 안전 점검 및 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 대상 세제·금융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재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부서 및 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분야별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온 예비수소전문기업인 ㈜하이솔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이끌 공식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하이솔, 수소전문기업 선정

전주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결실

전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온 예비수소전문기업인 ㈜하이솔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이끌 공식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시는 지난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주시 소재 기업인 ㈜하이솔(대표 이상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전문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관련 매출액이나 연구개발비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시 정부 수소 관련 사업 참여 우대 및 각종 기술개발·판로개척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이솔은 지난 2024년 설립된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전문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기후부의 공모사

업으로 추진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기술사업과 집중형)에 선정돼 밀착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하이솔은 이 사업을 통해 '액화수소탱크 단열을 위한 고성능 진공필름 및 필터 시스템'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극저온 가스 관련 특허 3건 출원, 투자유치 컨설팅 및 기업 홈페이지 제작 등의 R&D 패키지 지원을 받아 기업 경쟁력을 다져왔다.

그 결과, 핵심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기후부 수소전문기업 전환이라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 냈다.

무엇보다 이번 하이솔의 수소전문기업 지정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만호 기자

헌혈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 도모

전주시, 12·13·19일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전주시가 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올해 네 번째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운동에 이어 오는 13일에는 전주시청에서, 19일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각각 직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이 이

어질 예정이다.

시는 해마다 정기적인 단체헌혈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1월과 4월, 6월 총 세 차례의 헌혈운동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총 306명의 직원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꾸준한 헌혈 참여는 지역사회 헌혈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헌혈은 정해진 날짜에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되며, 직원뿐 아니라 인근 시민도 헌혈증을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헌혈증이 발급되며, △혈액검사 △혈압측정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B·C형 간염검사 △매독항체검사 △에이즈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발급된 헌혈증은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의미 있게 쓰인다.

또한 개발적으로 헌혈한 시민이 헌혈증서를 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평화건강성활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헌혈증서 기증함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 기준 전북지역 혈액 보유량은 적혈구제 기준 7.3일 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 보유량은 O형 7.0일분, A형 5.1일분, B형 11.8일분, AB형 5.3일분이다.

전체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인 5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혈액형별 보유량도 모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 혈액 수급은 헌혈자의 지속적인 참여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연중 운영되는 △헌혈의집 고사동센터 △헌혈의집 효자센터 △헌혈의집 전북대 한옥센터 △헌혈의집 장동센터 △헌혈의집 송천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청년이음전주서 내·외국인 청년 교류·소통의 장 펼쳐

전주시는 12일 청년이음전주에서 내·외국인 청년이 함께 역량을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청년과 지역 청년이 함께 어울리며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음전주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청년 2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1부 '지나 문화' 시간에는 당나라 시인인 왕지환의 '등관작투'와 이백의 '망여산폭포' 한시를 매개로 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도전 정신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내·외국인 청년과의 소통' 시간에는 참여한 청년들이 탕위안을 직접 만들고 홍차와 함께 맛보며 교감을 나누는 다문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이만호 기자

윤동욱 전주 부시장, 택배노동자 일터 찾아 안전 살펴

전주시가 무더위 속 배송 업무를 앞둔 택배노동자들의 일터를 찾아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원한 음료와 안전용품들을 나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12일 오전 롯데글로벌로지스 전주지점을 방문해 배송을 준비 중인 택배노동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더위 속에서

도 시민들의 일상을 위해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진행된 '이동노동자 휴식기 안전캠페인'은 여름철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택배노동자의 열외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노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12일 오전 롯데글로벌로지스 전주지점을 방문해 배송을 준비 중인 택배노동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을 위해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사민정협의회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동참해 각각 커피차와 안전키트를 지원하며 현장 안전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폭염 시간대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등 열외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노동자가 별도로 지원을 찾아오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맞춘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택배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시민들의 일상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의 짧은 시간이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한 번 더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살피고,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이동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12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국가도시공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수행 중인 '전주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국가도시공원의 의미와 기대되는 역할을 살펴보고, 덕진공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추진 여건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손용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가도시공원의 지향과 역할'을 주제로 국가도시공원의 개념과 제도적 의미, 도시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기대되는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양병선 전북대학교 교수가 '덕진공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주제로 덕진호수와 건지산을 비롯한 자연·역

사·문화 자원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가도시공원 관점에서 덕진공원이 지닌 가치에 대해 공유했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에서는 박은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주시 추진 여건 및 과제'를 주제로 전주시의 도시공원 여건과 국가도시공원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준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는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문수 정동영 의원실 선임비서관,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정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덕진공원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만호 기자

www.khnp.co.kr



무주양수발전소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 왜?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 주간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관람시간 : 주중 09:00 ~ 17:00(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관일 : 주말·공휴일·신정·설연휴·추석연휴·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 www.khnp.co.kr/한수원 방문신청 / SMS인종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